

곡성군, ‘심청어린이축제’ 어린이 무료입장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4~27일 나흘간 12세 이하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이용 로봇·인기만화 캐릭터 곳곳 배치

곡성군이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축제장을 방문하는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섬진강기차마을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인공이 어린이인 만큼 전국의 모든 어린이가 곡성에서 특별한 즐거

움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

어린이와 함께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지참, 기차마을 매표소 확인 후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군은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를 전국의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다.

‘디즈니 원더 곡성 개파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전국어린이 합창대회’와 ‘2025년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공식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디즈니 주인공이 되는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개막일인 24일에는 ‘더 디즈니 프린세스 콘서트’와 ‘캐리·엘리와 함께하는 싱어롱 쇼’가 펼쳐진다.

25일에는 싱어롱쇼 ‘신비아파트’, 26일에는 ‘로보카폴리’, 27일에는 ‘베베핀 해피 콘서트’가 매일 2회씩 공연된다.

이밖에 이번 심청어린이대축제는 기차마을 전체를 놀이터로 만들어 축제장 곳곳에서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고 로봇과 인기 캐릭터 등을 축제장 내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만족할 만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전국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심청어린이대축제가 10월의 어린이날을 표방한 만큼 아이들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은 국내 최대의 기차 테마파크로 약 24만㎡의 면적에 증기기관차와 꼬마기차, 레일바이크 등 기차와 관련된 콘텐츠로 가득해 전국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양성 목표

(재)화순장학회(이사장 구복규)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학생과 부모(보호자)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자녀로 △화순 장학생은 대학생 대상 △다자녀 장학생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다자녀 장학생은 완화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적용해 3자녀 이상 가정과 2자녀 가정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하반기 지급되는 3자녀 가정의 장학생금은 1인당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2자녀 가정은 3자녀 가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하반기 일시불 지급으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최대 100만원이다.

대학생은 두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등록금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실납부액이 지원되며 2자녀 장학금은 연 1회만 지급한다.

(재)화순장학회는 장학금 신청 방식을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호자나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서류 누락이나 접수 오류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화순장학회’를 검색한 후 해당 분야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화순장학회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www.hwasu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장학회(061-379-335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2025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모집 담양군, 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

담양군이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6일까지 202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35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재심사하고, 새로 신청한 업소를 포함해 관내 음식점 730개소의 5%인 36개소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현지 조사 이후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음식문화 개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관광객과 군민들이 안전한 외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음식문화 개선에 관심 있는 외식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이동형 수도물 음수대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나주영산강축제 기간에 친환경 이동형 수도물 스마트 음수대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 동참했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에 따르면 냉·온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동형 수도물 스마트 음수대는 실시간 수질 정보를 제공하여 수도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자동 컵 세척기에 내장된 스테인리스 컵 사용으로 친환경 음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물 음용 체험과 더불어 환경교육 부스를 운영해 친환경 수차발전기 만들기,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ESG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축제에 친환경 이동형 수도물 스마트 음수대를 마련했다”며 “스마트 음수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도물 음용 홍보는 물론 탈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용 기자

운행차 소음·불법개조 합동점검 함평군,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함평군이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평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과 불법 개조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의무에 따른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통 소음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관계자들이 나주영산강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동형 수도물 스마트 음수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함평군, 실내수영장 문 열어…25m 7레인·유아풀 등 갖춰

군민 건강증진·여가선용 기여

함평군이 지난 11일 함평 문화체육센터에서 함평군 실내수영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수영장은 함평 문화체육센터 내에 연면적 2624㎡ 규모로, 25m 길이의 7레인 및 유아풀을 갖추고 있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평군,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소방서는 생존수영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수상 안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준공식에는 이남오 함평군의회회장을 비롯한 황의준 전남도 수영연맹회장, 유



지난 11일 함평군이 실내수영장 준공식을 열었다.

함평군 제공

관기관, 사회단체 대표, 군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새로운 체육시설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상의 군수는 “그동안 수영 강습을 위해 군을 벗어나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하다”며 “함평실내수영장이 지역의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보강과 함께, 군민의 중요한 공공체육시설

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수영장을 시작으로 문화체육센터에 2028년까지 총 424억원을 투입해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추가로 조성, 센터를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보건소, 장애인 맞춤 재활프로그램

12월 16일까지 관련 기관 3곳서 비만 관리·원예치료·미술치료 등

나주시보건소(소장 강동렬)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지원회 나주시지부, 나주이화학교, 해뜨는 어린이집

등 총 3곳의 장애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지적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복부 비만 관리 프로그램과 장애학생을 위한 원예치료,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놀이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복부 비만율이 높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동처방과 비만집 시술은 건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예치료는 소근육 발달을 돕고 미술

놀이치료는 장애아동의 인지 기능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기관과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재활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심리적·신체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며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